만해대상 '포티락 · 엄홍길 · 김주영 · 신달자'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서 시상식

코로나19 사태 방역 최전선 대구 동산병원도 실천대상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티락 스님 — 태국 아속공동체 세워 청빈 무소유정신 실천

엄홍길(산악인) — 엄홍길휴먼재단 설립해 네팔 오지서 교육 앞장

김주영(소설가) — 민중 삶, 풍속 소설로 천착

신달자(시인) — 존재의 현상과 본성, 시로 탐구

올해 만해대상 실천대상에 불자 산악인 엄홍길 씨와 대구동산병원이 선정됐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곽채기 · 동국대 교무부총장)는 '제24회 만해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올해 실천대상은 산악인 엄홍길 씨,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병원장 서영성)이 받게 됐으며, 평화대상은 태국 아속공동체 창시자 포티락 스님, 문예대상은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시인 신달자 씨가 공동 수상하게 된다.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퇴거 전 소록도 간호사,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이 있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엄홍길 씨는 2000년 히말라야 8,000m이상 14개 봉우리를 모두 밟은 불자 산악인으로 장애인과 청소년들에게 깊은 사랑을 쏟으며 2008년 재단법인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엄홍길휴먼재단은 네팔 히말라야 산간 또는 오지 마을에 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초입인 쿰부 남체(3,440m)에 엄홍길휴먼재단병원을 2017년 5월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국내의 산악인 유가족 지원 사업을 펼쳐 2020년 6월 현재 3억7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와 최전방에서 싸워온 코로나 방역의 최후 보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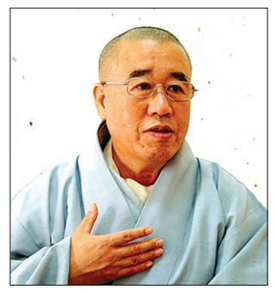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포티락 스님은 경전 속에만 있는 '비폭력'과 '평화'의 삶을 현실로 끌어낸 인물이다. 태국에서 작사가와 텔레비전 프로그래머로 부와 명성을 누리던 그는 "부와 명성과 안락이 왕자 고타마 싯다르타를 정복할 수 없었듯이 나 또한 정복할 수 없었다"며 출가를 결행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를 빙자해 타락한 주류승단을 꾸짖으며 '아속공동체'를 만들어 무욕과 청빈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5개의 아속마을공동체과 9개의 학교, 6개의 채식레스토랑, 4개의 유기농비료공장, 3개의 쌀 방앗간, 2개의 허브 의약품 공장, 하나의 병원, 160헥타르의 농장에서 붓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소설가 김주영 씨는 영웅이 아닌 평범한 민초들의 삶을 치열히 탐구해 역사소설의 주인공으로 올려놓은 작가다. 1971년 단편 '휴면기'로 월간문학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고 1979년부터 '객주'를 연재하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활빈도〉, 〈야정〉, 〈화척〉 등 주로 대하 역사소설을 집필해왔고 여든에 이른 지금까지도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기층 민중의 삶과 당대의 풍속을 그려내는 탁월한 기량과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다수 발표한 업적, 해외 문학 교류 분야에서도 성취를 보여줬다.

또 다른 문예대상 수상자인 시인 신달자 씨는 처녀시집 〈봉헌문자〉를 필두로 〈고향의 물〉, 〈아버지의 빛〉, 〈어머니, 그 삐뚤빼뚤한 글씨〉, 〈열애〉, 〈종이〉를 비롯하여 2년간 북촌 한옥에 살며 북촌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쓴 〈북촌〉까지 15권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만나고 헤어지는 일로서의 사랑, 나고 죽음으로서의 인생 그리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으로서는 존재의 현상과 본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인간의 실존에 관한 탐구를 바탕으로 존재론적인 면을 주로 천착해 왔다.

한편, 만해축전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거행된다.

선학원 20대 이사장에 송운 스님 선출



재단법인 선학원 제20대 이사장에 前 총무이사 송운 스님〈사진 위〉이 선출됐다. 이는 지난 12년간 삼선 이사장으로 숱한 논란을 빚었던 법진 스님 체제가 마무리되고 신임 이사장 체제가 열리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선학원 이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기관지 불교저널에 따르면 선학원은 7월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송운 스님(아산 보문사 주지)을 선출했다. 송운 스님의 임기는 오는 9월 18일부터 4년간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4명 중 1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송운 스님의 이사장 선출은 지난 12년간 사실상 독주체제로 이사회를 운영해 온 법진 이사장 체제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외부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선학원 이사회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은 물론, 법진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송운 스님이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학원 안팎에서는 이사회의 일부 변화를 기대하는 시각과 "법진 스님의 꼭두각시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송운 스님을 이사장으로 9월 출범할 20대 이사회가 향후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0대 이사장 송운 스님은 평창 월정사에서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0년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74년에는 조계종 제8대 · 15대 · 23대 총무원장과 선학원 제6대 이사장을 역임한 석주 정일(昔珠 正一) 스님을 법사로 입실 건당했다. 1979년부터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소임을 맡았고 2016년 재단법인 선학원 범행단 총괄단장 소임을 맡아왔다. 현재 아산 보문사 주지다.

한편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는 이날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덕, 철오, 현보, 혜광, 보운, 영주, 담교 스님을 재선출하고, 감사 영은 스님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불살생 가르침 의약 개발서도 실천

국내 최초 '비동물실험' 개발

동국대가 동물실험 대체 기술을 개발해 불교의 불살생 가르침을 의약 개발서 실천하는 밑바탕을 마련했다.

동국대는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면서도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 시험법은 국내 최초로 OECD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 가이드라인으로 공인받았다.

동국대 박유헌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이 과정에서 기존 시험법의 치명적 단점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간섭을 유전자 편집 기술로 해결해 안드로겐 수용체 전사활성 시험법 개발에 기여했으며, OECD 주관 국제공동검증연구에 참여했다.

박 교수는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해 시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의 희생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방과 후 교실 아닌 '법회 후 강연' 어때요?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 신도 네트워크 20년 비결

법률상담 · 초빙강연 등으로 현재 200여 회원 규모 증가



조계사 안심당은 일요법회 봉행팀의 보금자리다. 대웅전 법회 후 강연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20주년을 맞은 봉행팀원들이 발원하고 있다.

이제는 당연시 된 '놀토'와 '주5일 생활패턴'이 생소했던 2000년 7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작은 모임이 출범했다. 토요일 휴무와 사찰의 양력 행사에 맞춘 조계사 일요법회를 지원하기 위해 봉행팀이 탄생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974년 시작된 불광사 일요법회와 1997년 시작된 길상사 일요법회 등 소수 사찰 외에는 일요법회 개념조차 모호하던 때,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일요법회의 전면시행은 교계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7월 5일 조계사 안심당에서는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날 법회는 조계사 행정국장 홍재 스님을 법사로 조계사 안심당에서 50여 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일요법회 봉행팀은 초기 30여명에서 현재 200여 회원을 두고 있는 조계사 最古팀으로 각황사 시절부터 간간히 진행돼 온 일요법회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요일마다 계층법회가 열려 일요법회만의 장점이 사라진 지금 아직도 일요법회가 이른바 '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법회 봉행팀의 법회 후 활동서 찾을 수 있다. 법률 상담부터 유명강사 초빙 강연, 레크리에이션 진행, 한방 진료 등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보통 일요법회라 하면 법회 후 산회가 일반적이지만 조계사 일요법회 봉행팀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회 후 안심당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법회를 갖는다. 법회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최정숙 일요법회 봉행팀장은 "첫째주에는 사중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보고, 둘째주 만발공양, 셋째주 초청강연, 넷째주 복지관 봉사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섯째주에는 관음성지, 유네스코 사찰순례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요법회의 경우 결국 도움이 되는 법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령인 팀원 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팀 활동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법회 봉행팀은 프로그램 진행 효과로 평균연령 60대에서 최근 30대와 40대 팀원이 늘고 있다.

한편, 조계사 신도회는 신도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지역포교를 위해 구성된 5개 지역본부와 함께 소임, 포교, 사회, 교육, 수행 등 5개 분야 본부로 구성돼 있다. 사무처 산하에 4개 팀, 소임본부 내 19개 팀, 포교본부 6개팀 1개회, 사회본부 5개팀, 교육본부 4개팀, 수행본부 3개팀 등 총 42개 1개회가 세부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요법회 봉행팀은 사찰안내팀, 접수지원팀 등 소임본부 내 19개 팀 중 하나로 신도조직화 사업 초기 구성된 팀 중 하나다.

김문주 조계사 신도회 사무총장은 "사찰이 하나의 사부대중 공동체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도 개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다.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신도조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기 2564(2020)년 사찰 및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공고

본종 승려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불기 2564(2020)년 사찰 및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시행합니다. 분한이란 우리종단에 소속되어 수행정진 중인 스님(교임·전법사)에 대하여 종법에 따라 5년마다 그 신분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본종 수행가풍 진작과 종지종풍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금번 분한신고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활한 종무행정 수행과 본종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역량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는데 원력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① 사찰등록증갱신(재교부): 불기 2564(2020)년 7월 1일~9월 30일(3개월)
② 승려(교임·전법사)분한신고: 불기 2564(2020)년 10월 1일~12월 31일(3개월)

2. 신고대상: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 승려, 교임, 전법사

3. 서류접수처
① 소속 교구종무원
② 서울, 경기로 교구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 교구종무원으로 서류 제출
③ 사고교구 종무원의 경우 총무원으로 서류 제출

4. 신고서류
① 사찰등록증갱신(재교부)
-사찰등록증갱신(재교부) 신청서 1부(대표자 증명사진 부착)
② 승려(교임·전법사)분한신고
- 승려(교임·전법사)분한신고서 1부(증명사진 부착)
※신고서류 교부: 각 시도교구종무원 및 종단홈페이지(http://www.taego.kr)에서 다운로드

5. 분한신고 수수료
① 사찰등록증갱신: 10만원
② 승려분한신고 : 3만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사찰은 사찰등록증갱신(재교부) 신청서만 제출(수수료 면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입적한 승려(교임·전법사)는 분한신고서만 제출(수수료 면제)

6. 주의사항
① 본종 징계법에 의거, 재적 이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징계법에 규정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분한신고에서 제외함
② 2020년도까지 미납된 사찰분담금 및 승려의무금이 있을 경우 이를 완납하여야 함
③ 신고 기간 내에 사찰등록증갱신 및 분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승려법 제14조(승려분한신고)에 의거, 승려자격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적 직권말소 및 분한 정지에 따른 본종 승려(교임·전법사)로서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없음

불기 2564(2020). 6. 30.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